
췌장의 초음파검사를 위한 scanning method의 제안

황정득내과의원

전득수, 황희자

목 적 : 췌장은 후복막강장기로 심부에 위치하여 초음파검사에서 난이도가 높아 흔히 병소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초음파검사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대상 및 방법 : 복부초음파검사를 시행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초음파검사방법은 췌장 전체를 묘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방법을 응용한다.

췌장두부의 묘출법은 횡단 scan하여 췌장 전체상을 그린 다음 탐촉자 방향은 시계 11시 방향으로 돌리면서(탐촉자의 압박은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 탐촉자의 각을 우측으로 준다. -여기서 주문택이 사라지면서 구상돌기(uncinate process)까지 확인된다.

췌장미부의 묘출법은 횡단 scan하여 췌장 전체상을 그린 다음 탐촉자 방향은 시계 7시 방향(시계역방향)으로 돌리면서(처음과 같은 압박상태를 유지) 탐촉자 각을 좌측으로 준다. 또한 반드시 비장을 sonic window로 두방향에서 접근하다.

결 과 : 췌장 초음파검사에서 전체 췌장두부암에서 새로 제안한 방법으로만 병소가 묘출되는 비율이 30% 이상이었다.

결 론 : 췌장은 횡단, 종단주사라는 막연한 주사에서 탈피하여 새로 제안한 주사방법을 사용한다면 진단율을 현저히 높여리라 확신하다.